

중국 대외경제 정책(1)

개혁이후 중국은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지만 소련은 개혁 후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

1. 새로운 시장 지향적 경제 주체 창출이 성공의 열쇠

-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

1) 국유기업(SOE)의 개혁 중국과 소련 둘 다 실패.

2) new entry - 새 경제 주체 창출 ex. 민간기업, 외자기업.

2. 지방 분권화를 하여 각 省간 경쟁 유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.

3. 초기조건의 차이

- 1) 중국은 시장경제 이전에도 소련의 경우보다 더 시장지향적

- 2) 중국 - 노동력과잉(임금상승압력 부재)<->소련-노동력 부족

구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중국개혁개방

90년대 초반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정치적 민주화를 동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 구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은 성공하였는가

러시아, 페레스트로이카 발표 (1991), 동유럽은 소련의 붕괴로 체제전환을 시도

- 목적: 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체제전환

- 내용: 가격자유화, 안정화.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재산제 도입

- 성격: 급진적(Big Bang)이고 광범위한 개혁정책

- 경제성과: 부정적

- 실질경제성장률을 경험: 90~97, 연평균 경제성장률 -10.7%(세계은행,2002)

극심한 인플레이션: 92~94, 구 소련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1000~4000%(EBRD,1999)

헝가리, 체코, 폴란드 등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확보

중국은 어떻게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화경제 개혁 및 대외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을까

중국개혁개방 성공의 원인

- 점진적 개혁
- 개혁이 비교적 쉬운 농업부문에서 개혁을 시작: 증량식 개혁방식
- 실험적 개혁 방식: 摸着石头过 식의 개혁 진행방식, 애초에 개혁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정치적 역학관계와 개혁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혁을 진행
- 아래로부터의 개혁: 지방 정부의 묵인 하에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개혁

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

- 1992년 중국의 경제개혁의 목표를 설정- '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' 건설
- 의미: 소유제 방면에서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사유, 사영, 외자 합자와 같은 비국유부문이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게 하는 경제체제

중국시장경제의 발전

-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는 개혁 중
- 새로운 시장경제체제가 형성 발전
- 전환기 시장경제체제

시장기능이 자원배분의 기초

- 소비제품 및 농산품시장 개방
- 생산재시장개방의 진화

국유기업 개혁

- 경쟁원리에 대한 생산성제고 개념 인식

중국 개혁 개방의 역사

제 1 단계(1978 -1983)

- 마오쩌둥-덩샤오핑 노선 차이
- 기업형태 (전민소유제, 집체소유제, 3자기업)

제 2 단계(1984 -1987)

- 매우 활발한 개혁 추진
- 공급자 우위 → 소비자 우위
- 국유기업개혁
- 개방 확대
- 외자 도입

향진기업 [鄉鎮企業]

중국의 개혁개방운동에 따라 1978년부터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육성되기 시작한 소규모 농촌기업

- 중국 전체적으로 1992년 9월까지 약 550만 개가 설립. 중국의 기업 형태는 국가가 소유하는 전민(全民)소유제,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집체(集體)소유제, 개인 또는 합작·합자·외국인 단독 등 3자(三資)기업 등 3가지.

- 향진기업은 집체소유제를 말함.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향진 소속 주민들이 중소기업을 형성, 경영과 생산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농촌 새마을 공장과 비슷

- 이 향진기업은 전민소유제 공장에 비해 4배 이상의 생산성을 보임. 이는 마을 주민들이 공장을 공동소유하고 재투자액을 제외한 모든 이윤을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며, 균등임금을 지불하는 국영기업과는 달리 고급 기술인력과 경영관리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고 기술자들도 능력에 따라

차등 임금을 받기 때문

- 따라서 이 제도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경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. 향진기업은 생산성 제고와 주민생활수준 향상, 또 외국기업들이 자국 내에 진출하는 경제특구와는 달리 외부로부터의 개방물결이 유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.